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金永珍**

I. 서론	A.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 목표
II. 아시아 중시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B.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에 대한 평가
A. 아시아로의 선회(Pivot to Asia)	IV. 아시아의 질서재편과 러시아의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B. 확대유라시아 파트너십 (Greater Eurasian Partnership)	V. 결론
III.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평가	

한글초록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아시아로의 선회(pivot to Asia) 혹은 아시아 중시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러시아 내외에서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한 비판론은 대체로 세 가지 주요 요인, 즉 원래 정책 목표의 미충족, 불명확한 정책 목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편에서 비롯된다. 이 논문은 러시아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특징을 분석하고, 이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동지역개발 및 아시아 주요국과의 정치경제 협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이를 통해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평가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오늘날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의한 역내 경제통합이나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정치경제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경제 협력에는 문제점도 존재하며,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이 위치한 중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중일 각국과의 경제협력은 양자 협력의 틀에 머문 채 공동의 지역경제 공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러시아는 ‘확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통한 중국과의 연계 강화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확대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지경학, 아시아로의 선회, 확대유라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대일로, 극동지역개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6(NRF-2016S1A3A2924409))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youngjinkim@hanyang.ac.kr

I. 서론

지경학 이론에 따르면, 러시아는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과의 통합을 통해 에너지 및 운송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아시아의 성장하는 시장과 연결됨으로써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영토를 물려받았지만, 소련 붕괴 후 20여 년간 서구 중심의 대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유럽의 변방으로 속절없이 밀려났다. 계속된 서구 중심의 ‘일방 편향’ 정책은 서구에 비해 불리한 비대칭적 관계를 악화시켰다. 최근의 상황 전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이러한 실책을 인식하여 그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서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방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자국을 유라시아 국가로 개조하기 위해 급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와중에서 러시아는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낀 주변부적 지위를 벗어나려 했다. 이제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는 경제적 연결의 허브로 될 수 있는 중요한 비교우위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인프라와 협력기구는 주변 국가들을 러시아 쪽으로 끌어들이는 중력으로 작용하여 러시아와 서방의, 그리고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성의 대칭관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이란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으려 하지 않으며 협력국가들에게 랜드브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

러시아는 2014년 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분쟁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크림반도를 자국의 영토에 편입했다. 미국이나 유럽 연합(EU)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

고, 러시아 경제를 침체시킨 한 가지 요인이 되었으며, 러시아와 서방국가들 간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뒤이어 우크라이나 친 러시아파에 의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2014년 7월)와 서방 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의혹이 일어나자, 서방국가들의 제재는 외교적 조치의 차원에서 경제 제재로까지 강화되었다. 서방국가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 정부도 또한 농산물 수입 금지를 비롯한 대항 조치를 실시했다.

이 같은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악화는 러시아 경제에 대해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 경제 상황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을 강하게 강요받았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정책이 적대적인 서방 시장으로부터 아시아 시장으로의 전환, 이른바 ‘아시아로의 선회’(Pivot to Asia)나 ‘동방으로의 전환’(Turn to the East)¹⁾ 등으로 불리는 아시아 중시 정책 혹은 전략이다. 그 이전에는 유럽 시장과 러시아 시장의 연결이 더욱 중시되어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시장권 구축이 제창되었지만, 최근에는 ‘상하이에서 칼리닌그라드까지’의 경제공간 구축이 제기되고 있다.²⁾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유럽 경제가 정체되었던 것과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이러한 정책 전환의 움직임을 가속

1) 국내 다수 문헌에서는 ‘아시아로의 선회’ 혹은 ‘동방으로의 선회(전환)’ 정책을 ‘신동방정책’으로 지칭하고 있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혹은 아시아 중시 정책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 혹은 상호 협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장덕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슬라브학보』, 제29권, 제1호 (2014), pp. 229-266; 윤성학,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러협력 방안,” 『수은혜외경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15), 31-50쪽. 러시아어 문헌에서는 ‘동방으로의 방향 전환(Поворот на Восток)’ 혹은 ‘아시아로의 방향 전환(Поворот к Азии)’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С. Караганов и И. Макаров, “Стратегия XXI: Поворот на Восток,” *Ведомости* (27 января 2014), <http://www.vedomosti.ru/newspaper/articles/2014/01/28/povorot-na-vostok> (검색일: 2022.06.15.); С. Караганов, “Поворот к Азии: истор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иде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12 января 2016) <https://globalaffairs.ru/pubcol/Povorot-k-Azii-istoriya-politicheskoi-idei-17919/>(검색일: 2022.06.10).

2) D. Suslov, “Without A ‘Common Space’: A New Agenda for Russia-EU Relations,” *Russia in Global Affairs* (1 July 2016), <https://eng.globalaffairs.ru/valday/Without-a-Common-Space-A-New-Agenda-for-Russia-EU-Relations-18257/>(검색일: 2022.06.10.)

화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국제경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를 중국의 ‘일대일로(BRI)’ 구상과 연결하는 ‘확대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을 추진하고 있다. 또 푸틴 대통령 하에서 러시아 정부는 동북아시아 시장에서의 창구가 되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아시아로의 선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³⁾ 이 정책에 대한 회의론은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중심축 이동(pivot)의 원래 목표의 미충족, 불명확한 정책 목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재 진행 중인 재편에서 비롯된다. 2012년 APEC 정상회의가 러시아 최초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면서 아시아로의 선회의 목표가 공식 선언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정책의 목표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관계 다변화, 아시아 역내에서 러시아의 존재감 향상으로 제시되었다. 이로부터 수년 후, 러시아는 중앙유라시아와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을 아우르는 확대유라시아(Greater Eurasia)에 대한 훨씬 더 큰 비전을 발표했다. 다시 말해, 동방으로의 방향 전환은 이제 더 넓은 틀 안에 포함되었으며, 확대유라시아의 여러 하위 지역에서 이 정책이 성공하면 이는 아시아 중시 정책의 전반적인 이행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였다.

이 논문은 러시아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이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극동지역개발 및 아시아

3)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조. Nivedita Kapoor, “Russia’s Pivot to Asia—A 10-Year Policy Review,” *Valdai Discussion Club* (21 March, 2022); Ryan Nabil, “Evaluating Russia’s Pivot to Asia,”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June 10, 2020); Maxim Bratersky, “Russia’s Pivot to Asia: Situational Interest or Strategic Necessity?” *Asian Politics & Policy*, Vol. 10, No. 4 (December 2018), pp. 584–596.; David Lewis, “Strategic Culture and Russia’s ‘Pivot to the East’: Russia, China, and ‘Greater Eurasia,’” *Marshall Center Security Insight*, No. 34 (July 2019).

태평양 지역과의 정치경제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평가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배경과 특징, 그리고 확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의 등장 배경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우선순위 및 목표를 분석하고 이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제4장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의 질서재편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에서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아시아 중시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A. 아시아로의 선회(Pivot to Asia)

러시아의 국가 상징인 제국의 쌍두 독수리는 대칭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항상 서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유럽의 강대국으로 인정받기를 열망했고 그 다음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큰 부분을 지배하려고 했다. 반면, 아시아는 대부분 러시아의 뒷마당으로 여겨졌는데, 러시아는 여기서 상대적으로 약한 주변국들과 식민지 건설에 처한 광대한 영토를 마주했다.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정학적·전략적 기반은 대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는 제국주의 시대와 소비에트 시대, 특히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새로 독립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⁴⁾

푸틴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동방으로의 선회’는

4) D. Trenin, *From Greater Europe to Greater Asia: the Implications of the Sino-Russian Entente* (Moscow: Carnegie Moscow Center, 2015).

대외정책의 방향을 아시아로 전환하려는 러시아의 첫 시도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의 지리적 전략은 유럽 지향성을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균형을 취하려는 수많은 시도 간의 긴장으로 형성되어 왔다.⁵⁾ 러시아는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시베리아를 통과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열면서 중국과 조약을 체결한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되었다. 차르 제국은 1858~1864년 동안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극동지역에서 665,000평방마일 이상의 영토를 중국으로부터 탈취했다.⁶⁾ 1890년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건설은 러시아 극동지역을 개방시켜 정착, 무역, 군사 배치를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정학에 러시아를 더 깊숙이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아시아 국가에 의해 첫 패배를 당하면서 러시아 차르가 뒤늦게 시도한 아시아로의 방향 전환은 치욕으로 끝났다.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는 동방의 인접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 열정과 무관심 사이에서 앞선 시기와 유사한 패턴을 따랐다. 한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1990년대에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지배하는 쿠릴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기대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 대신,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은 점점 더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 의해 지배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보다 균형 잡힌 러시아 외교정책에 대한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당시 외무장관의 약속에 따라 199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가 되었다. 2001년 러시아는 중국과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고, 2005년에는 오랜 국경 분쟁을 해결했다. 무역 및 경제통합의 진전은 더뎠는데, 중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더 관심이 있었고 러시아는 자국의 전략산업 부문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신중했기 때문이다.

5) 러시아의 ‘아시아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lan Hauner, *What is Asia to Us? Russia's Asian Heartland Yesterday and Today* (Boston: Unwin & Hyman, 1990).

6) Paul J. Bolt and Sharyl N. Cross, *China, Russia, and Twenty-first Century Global Geo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냉전 종식 이후 존재론적 우선순위였던 유럽-대서양 체제로의 통합에서 벗어나 아시아로의 포괄적 방향을 재설정하고 ‘비서방’과의 연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복합적인 전략이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에게 ‘아시아’는 정확한 지리적 경계와는 상관없이 러시아의 대안적 비전이다. 여기서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 중시 정책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제재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대응을 넘어서는 러시아의 새로운 그랜드 전략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운용의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아시아로의 선회’는 러시아의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⁷⁾

러시아의 이른바 ‘아시아 중시 정책’은 서구와의 결별을 예고하고 있다.⁸⁾ 푸틴 대통령 스스로 2000년대부터 이에 대한 추진력을 불어넣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주요 도전은 미국에서 비롯되는데, 냉전의 종식으로 러시아는 더 이상 강대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러시아의 지배 영역 깊숙이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반면, 동방의 도전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중국은 총체적 국력이란 면에서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러시아를 앞질렀고 주변국들을 자국의 영향권에 끌어들이면서 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까지 유럽, 남캅카스,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미국과의 광범위한 화해를 모색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확대와 심화 등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면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다. 또한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유럽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연계를 증진한 것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균형을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7) David Lewis (2019).

8) D. Trenin, “Russia’s Asia Strategy: Bolstering the Eagle’s Eastern Wing,” *Russie.Nei.Visions*, No. 94 (June 2016), p. 11.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러한 균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서방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화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특히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세계 제2위 경제국인 중국에서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서방 지배를 새로운 다극적인 세계질서로 대체할 비서방 동맹의 핵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지리적 확장은 국내 통합과 유라시아 통합 사이의 연결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 러시아와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약한 연결성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중요한 안보적 관심사였으며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었다. 유럽 중심의 유라시아와 아시아 중심의 유라시아라는 두 개의 극을 가진 유라시아의 상황전개는 러시아에 이중적 위협을 야기한다.⁹⁾ 대외적으로 볼 때, 유럽과 아시아 양쪽 모두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는 주변부 국가 혹은 지리적 ‘블랙 홀’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 볼 때, 유럽 러시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 주권이 위협을 받게 되면 반대쪽 세력권으로 끌려 들어가기 때문이다.¹⁰⁾

러시아는 ‘중간 대륙’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유라시아 강국의 지위를 확보해야 주변부적인 지위를 벗어날 수 있다. 이 전략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유럽 러시아 및 동북아시아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영토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개발이 지체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인구가 부족하고, 낙후되고, 부패하고, 관료주의적이기 때문에 발전이 방해받고 있다. 게다가, 극동지역은 ‘지나치게 유럽적’이라는 면에서

9) N. C. Kuhrt, “The Russian Far East in Russia’s Asia Policy: Dual Integration or Double Periphery?” *Europe-Asia Studies*, Vol. 64, No.3 (2012), pp. 471-493.

10)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을 분리된 실체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ёт о совещании п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8234> (검색일: 2019.10.15.)

관념적/간주관적으로(inter-subjectively) 아시아와 분리되어 있다. 국경의 맞은편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과 여타 역동적인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다.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 커다란 이유는 막대한 천연자원에 기인하는데, 러시아는 중국의 에너지 공급국으로 전략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에 실패한다면 이는 동북아와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고 러시아의 영토 보전에도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이유로 푸틴은 극동지역의 발전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¹²⁾

B. 확대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

19세기 이래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그 반대가 되고 있다.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서의 지리적 인식 틀은 부상하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를 둘러싼 우려였다. 러시아는 유럽적인 유산을 거부하고 동방에서 대안적 정체성과 지정학적 운명을 찾는 과정에서 오래 전부터의 지해 온 유라시아주의 사고에서 그 잠재력을 발견하려 했다.

1920년대 망명 중인 러시아 지식인들에 의해 창시된 유라시아주의 운동은 동유럽에서 중국 제국의 국경에 이르는 광대한 지리적 영역을 묘사하기 위해 ‘유라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¹³⁾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이 세계의 중심에 있는 강대국이라는 사고는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전략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유라시아주의는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 명확한 전략적 해답을 제시하지

11) D. Trenin (2016).

12) G. Diesen, *Russia's Geoeconomic Strategy for Greater Eur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7).

13) Charles Schlacks, Ilya Vinkovetsky, and Petr Savitskii, *Exodus to the East: Forebodings and Events: An Affirmation of the Eurasians Exodus to the East* (Idyllwild, Calif.: Charles Schlacks, 1996).

못했다. 전통적인 유라시아주의 사고에서 유라시아는 중국의 유교-불교 문명 공간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문명 및 지정학적 블록이었다.¹⁴⁾ 많은 유라시아주의 사상은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전통적 의심, 즉 중소 분쟁 동안 강화되었던 견해를 강조했다.

2010년대 중반 러시아의 외교정책 사상가들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최초의 진정한 전략적 개념으로 일컬어지는 ‘확대유라시아’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¹⁵⁾ 이 개념은 2015년 세르게이 카라가노프(Sergei Karaganov), 티모페이 보르다초프(Timofey Bordachev) 등의 학자들이 이끄는 발다이 클럽의 러시아 외교정책 사상가 그룹 사이에서 처음 등장했다. 카라가노프(Karaganov) 등은 ‘중국 위협’이라는 개념은 소련 시대에 발명된 개념인데, 나중에 미국이 사용을 장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 위협’이라는 개념 대신, 중국은 새로운 ‘확대 유라시아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러시아의 핵심 동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러시아는 개발의 초점을 러시아의 유럽지역에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운송 및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투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용어는 러시아 정계를 비롯한 공식 서클에서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당시 국가두마 의장이었던 세르게이 나리슈킨(Sergei Naryshkin)은 무르만스크에서 상하이에 이르는 ‘확대유라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¹⁶⁾ 2016년 6월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총회에서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및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

14) Marlene Laruelle, “When Eurasia looks east: is Eurasianism Sinophile or Sinophobe,” in M. Bassin and G. Pozo (eds.), *The Politics of Eurasianism: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Russia’s Foreign Policy* (London: Rowman and Littlefield, 2017), pp. 145-159.

15) Timofei Bordachev, “Main Results of 2017: Energetic Russia and the Greater Eurasia Community,” (December 28, 2017), <https://eng.globalaffairs.ru/articles/main-results-of-2017-energetic-russia-and-the-greater-eurasia-community/>(검색일: 2022.06.15.)

16) Нарышкин, “успешная работа ЕАЭС с КНР поможет создать «Большую Евразию»” *РИА Новости* (6 октября 2015 г.), <https://ria.ru/20151006/1297516870.html>(검색일: 2022.06.10.)

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과 같은 국가들의 참여를 통해 확대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er Eurasian Partnership)을 구축”하는 데 대해 얘기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¹⁷⁾ 푸틴 대통령은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포럼에서 “일대일로(BRI), 상하이협력기구(SCO),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이 확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의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¹⁸⁾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확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러시아의 사고를 반영하며, 여기에는 ‘통합의 통합’ 또는 유라시아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양자간·다자간 통합 과정의 긴밀한 연결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확대유라시아’라는 사고로 돌아갔다.¹⁹⁾

확대유라시아는 러시아를 중국과 대등한 파트너로 묘사하고 일대일로(BRI)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동등한 의미의 통합 프로젝트로 제시되는 유용한 틀이 되었지만, 단지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중국의 13조 6,000억 달러의 경제규모와 1조 7,000억 달러에 불과한 러시아 GDP 간의 증가하는 격차를 감추기 어렵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확대유라시아 사고를 지지하는 논자들의 주장인데, 즉 중국이 다자적 틀 내에서 가장 잘 관리될 수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과 러시아, 인도, 중국을 포함하는) 더 넓은 확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한 잠재적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에서 중국은 경제적 리더가 될 수 있지만 패권국은 아니다. 느슨한 확대유라시아 파트너십 내에서 “중국은 러시아, 인도, 일본, 한국, 이란, 인도네시아,

17)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17 июня 2016 г.),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2178> (검색일: 2022.06.10.)

18) “Путин: Евразий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должно изменить политический ландшафт континента,” *РИА Новости*, (14 мая 2017 г.), <http://1prime.ru/News/20170514/827449765.html> (검색일: 2022.06.10.)

19)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esident of Russia, Webpage*, (April, 2019),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0378>(검색일: 2022.06.10.)

필리핀과 균형을 이룰 것”²⁰⁾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완결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앙아시아, 중동, 북극해에서 중국의 수송로와 전략적 측면을 확보하는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주요 안보 행위자로서는 불가결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프레멘코(Ефременко)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입증한 ‘보안관’의 역할을 확대유라시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¹⁾

Ⅲ.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평가

A.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 목표

1980년대와 2000년대 초 사이에 러시아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인 소련의 붕괴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이라는 고통스럽고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 이 시기에는 극동지역을 겨냥한 특기할 만한 개발정책은 없었다. 러시아 지도부가 다시 한 번 극동과 시베리아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였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을 개발하기로 한 결정은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에 항상 존재해 온 것과 같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한편으로,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정학적 공간의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의 전략 문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되었다.²²⁾

20) Сергей Караганов, “Бог победил. Что дальше?”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16 января 2017 г.)

21) Дмитрий Ефременко, “Рождение Большой Еврази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28 ноября 2016 г.)

22)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утв. Президентом РФ 12.02.2013), <https://legalacts.ru/doc/kontseptsija-vneshnei-politiki-rossiiskoi-federtsii-utv-prezidentom/>(검색일: 2022.06.20.)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통합함으로써 자국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동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푸틴이 “가장 가까운 미래에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 안에 러시아 국민들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구사할 것”²³⁾이라고 언급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푸틴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경제 발전의 가장 역동적인 중심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APR)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 개발을 포함한 국내 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²⁴⁾ 러시아는 극동과 동시베리아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단일경제지역으로 변화시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러시아 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러시아가 세계 경제 및 정치에 통합되는 새로운 관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 지도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동기가 있다. 이는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질서에 통합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에게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기도 한다. 러시아는 미국이 지배하는 대서양 세계 질서에 자국을 통합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이것은 대부분의 면에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러시아는 유럽의 안보구조, 세계경제 및 무역,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곤란한 관계 등에서 자국의 위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이는 2014년 크림 반도 병합 및 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욱 악화되었으며 최근 들어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러시아 지도부는 NATO 및 EU와 같은 독점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러시아가 수용 가능하고 바람직한 정치

23) Vladimir Putin, Annu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December 12, 2012),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17118> (검색일: 2022.06.20.)

24) Vladimir Putin (2012).

및 경제적 위치로 나아가는 것을 이들 기구가 방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²⁵⁾

2012년 APEC 정상회의 개최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틀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로의 선회에서 러시아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체제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노력은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기구 건설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성공적인 안보기구 건설의 장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장에 성공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지역의 안보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안보 체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러시아에게 아시아로의 선회는 유럽의 정치·경제적 전통의 궤도를 벗어나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국가발전의 과제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의 목표를 바라보면, 러시아의 극동 및 동시베리아의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가 러시아의 중요한 전술적 목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실현하고 이 지역을 국제시스템의 규칙을 제정하는 핵심지역으로 전환시킨다는 러시아의 전략적·장기적 이익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러시아의 안보 상황과 서방과의 관계는 수세기 만에 최악으로 치닫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방 확대를 통해 이전의 안보 완충지대를 통합한 서방연합의 단일대오에 맞서 고립되어 있다. NATO와 함께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를 명시적으로 배제한 정치·군사적 연합을 구축하여 러시아의 비전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다. 서방이 지배하는 세계경제는

25) Maxim Bratersky, "Russia's Pivot to Asia: Situational Interest or Strategic Necessity?" *Asian Politics & Policy*, Vol. 10, No. 4(December 2018), p. 587.

러시아를 유럽에 원자재 및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간적인 발전단계에 있는 부속지의 지위로 강등시켰고, 러시아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남겨놓지 않았다. 러시아 지도부는 1990년대에 러시아가 세계 주도국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그들은 결코 동등한 수준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규칙을 제정하는 상위 테이블에 앉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²⁶⁾ 이 시스템에서는 러시아의 지위를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대안적 시스템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러시아는 기존 국제질서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 자국이 다른 강대국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 변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질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믿으며, 따라서 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 지역에 통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및 글로벌 양 수준에서 현재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통합을 매우 중요시한다. 기존에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세 가지 이유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러시아의 동방으로의 선회 정책은 인구밀도가 낮은 러시아 동부지역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욕구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둘째, 러시아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수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셋째, 러시아는 동시에 자국의 영토를 보호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정책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²⁷⁾

26) Edward Ponarin & Boris Sokolov, "The Russian Elite's View of Global Politics,"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4, <http://eng.globalaffairs.ru/number/The-Russian-Elites-View-of-Global-Politics-17222>(검색일: 2022.06.20.)

27) Fiona Hill & Bobo Lo, Putin's pivot: Why Russia is looking East. *Foreign Affairs* (July 31, 2013),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russian-federation/2013-07-31/putins-pivot>(검색일: 2022.06.20.)

러시아의 ‘동방으로의 선회’는 푸틴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2012년~2018년)의 시작과 함께 수사적 과시로 시작되었다.²⁸⁾ 이 정책은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2022년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게 다른 방향으로의 선택의 여지를 크게 축소시켰다. 이 동방으로서의 선회 정책의 목표는 세 가지 주요 방향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① 러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발전 가속화,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관계 다변화, ③ 러시아의 이 지역에서의 존재감 강화가 그것이다.²⁹⁾

B.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에 대한 평가

러시아가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을 10년 간 추진해 오면서, 이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낳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장애에 빠져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 왔다. 수한킨(Sergey Sukhankin)은 이에 대한 이유로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한다.³⁰⁾ 첫째, ‘러시아에서 가장 발전이 지체된 지역’인 시베리아와 극동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인들 간에 이 거대 지역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극동의 많은 지역은 러시아 주민과 기업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는 연방정부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 중심주의이다. 냉전 종식 이후 주로 EU의 원자재 공급원이 된 러시아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28) 동방으로의 선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Alexander Korolev, “Russia’s Reorientation to Asia: Causes and Strategic Implications,” *Pacific Affairs* 89, No. 1 (2016), pp. 53-73.

29) David Lewis (2019); Nivedita Kapoor (2022)

30) S. Sukhankin, “Russia’s ‘Pivot to Asia’ Encounters New Difficulties,” *Eurasia Daily Monitor*, Vol. 17, No. 167 (2020).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경제발전 경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셋째는 경제와 무역보다 외교와 정치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름 인상적인 외교적·정치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한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넷째, 극동지역 주민들은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이 모스크바의 로비에 의해 발생한 인위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역 현실을 적절히 평가하지도 못하고 현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한킨은 사실상 연방정부가 어떠한 방법과 수단으로 지역 정체성과 특성을 보존하면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인지 현지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는 앞의 절에서와 같이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의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각각 평가하고자 한다.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일견 러시아는 정치적·조직적인 면에서 이 목표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12년 연방의회 연설에서 ‘동방으로의 선회’를 발표한 후, 러시아는 혁신적이고 분권화된 극동개발부를 설립했다.³¹⁾ 극동개발부는 선도개발구역(TOR) 네트워크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자유항 체제를 비롯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개발에 집중한 결과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성장세와 투자 증가라는 성과가 나왔지만 러시아 극동지역의 시장 규모는 여전히 작은 수준이다. 2014년 이전에는 서방의 자금원이 극동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크림반도 병합과 서방의 제재가 부과된 이후 서방의 투자는 고갈되었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기대 역시 실현되지 않았고,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간의 협력 프로

31) 2019년 2월 26일 푸틴대통령은 러시아 북극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관한 국가정책 및 체계를 공식화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극동개발부의 개편에 대한 법령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기존 극동개발부의 업무가 북극지역으로 확장되어 극동북극개발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램(2009-2018)’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2018-24년을 실행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이라는 국내 아젠다는 아시아로의 선회가 지향한 세 가지 목표 중 가장 성공적이지 못했다.³²⁾ 2013년 12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태평양으로의 방향 전환과 모든 동쪽 영토의 역동적인 발전은 21세기 전반에 걸친 우선순위”³³⁾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활동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치·재정 시스템은 지방 및 지역 이니셔티브 추진을 적극적으로 가로막는다. 기업활동과 세금은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으로 흘러들어가고, 정부 지출은 이러한 중앙집권화를 반영하여 집행된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교통인프라 건설의 70% 정도가 모스크바에서 50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진다.³⁴⁾ 러시아의 비평가 빅토르 라린(Viktor Larin)은 모스크바에서 동방으로의 선회에 대한 새로운 슬로건이 무엇이든,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지역에서는 그 슬로건이 크렘린 몽상가들의 또 다른 실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⁵⁾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관계 다변화라는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하여, 교역 증가의 상당 부분은 이 지역과의 광범위한 다양화보다는 중국과의 무역관계 증가에 기인한다. 이미 러시아의 무역 패턴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에서 중국 쪽에 크게 치우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러시아의 교역량에서 중국의 비중은 18%에 달하고, 러시아가 중국의 무

32) David Lewis (2019).

33) President of Russia, “Presidenti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December 12, 2013), <http://eng.kremlin.ru/transcripts/6402>(검색일: 2022.07.10.)

34) Тимофей Бордачев, “Новое евразийство: Как сделать сопряжение рабочим,”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14 октября 2015 г.), <https://globalaffairs.ru/number/Novoe-evraziistvo-17754>(검색일: 2022.07.10.)

35) Виктор Ларин, “Новая геополитика для восточной Еврази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13 сентября 2018 г.), <https://globalaffairs.ru/number/Novaya-geopolitika-dlya-Vostochnoi-Evrazii-1973>(검색일: 2022.07.10.)

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해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관계 증대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정치, 외교적 관계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두 지도자 사이의 강한 개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끌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지만, 무역은 2005년 210억 달러에서 2018년 1,080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양국은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중국의 가장 큰 원유 공급원이며, 중국은 러시아 북극에서 2개의 주요 LNG 플랜트에 투자했으며, 러시아 가스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시베리아의힘(Power of Siberia) 파이프라인은 2019년 말에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 무기 판매의 주요 시장으로 남아 있다. 러시아는 SU-35 전투기와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일부 최첨단 장비를 중국에 판매했다.³⁶⁾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대중 무기 수출에는 10년 이하의 짧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제시하는데, 그 이후에는 중국의 국내 무기 산업이 러시아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 혁신을 발전시켜 러시아가 중국 생산자들에게 밀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평가한다.³⁷⁾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이 지역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경제 제재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중국의 유니온페이(UnionPay)와 은행 간결제시스템(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과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몇몇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 국내통화로 거래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2차 제재를 고려하여 다른

36) Franz-Stefan Gady, "China's Military Accepts First S-400 Missile Air Defense Regiment From Russia," *The Diplomat* (July 2018), <https://thediplomat.com/2018/07/chinas-military-accepts-first-s-400-missile-air-defense-regiment-from-russia>. (검색일: 2022.07.10.)

37)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 관계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월 러시아 동부 군사관구에서 열린 보스토크 군사 훈련에는 3,500명의 인민해방군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Mathieu Boulégué, "Russia's Vostok Exercises Were Both Serious Planning and a Show," *Chatham House* (September 17, 2018).

국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현 단계에서는 불분명하다. 일부 제재를 우회하더라도 러시아의 취약한 경제상황이 무역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동방으로의 선회를 더디게 할 것이다.

세 번째 목표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러시아의 존재감 향상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주요 무기 공급국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기구 및 아세안의 개별 국가들과 전반적으로 협력관계를 갖는 데는 느리게 발전해 왔다. 러시아는 베트남과 같은 전통적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개선했지만, 경제 및 정치 영역에서의 러시아의 참여는 여타 역내 강대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스스로를 독자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그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점점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무기 판매는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하지만 지정학적 차원에서 역할이 증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과거 초강대국인 러시아를 아시아의 중간 강대국으로 분류한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가 2021년 아시아파워지수(Asia Power Index)에서 러시아의 지역 내 영향력을 평가한 데서 알 수 있다.³⁸⁾ 러시아는 회복력(자원의 가용성, 핵 억지력), 군사 능력 및 방어 네트워크 측면에서 수행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경제적 관계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지수는 러시아가 예상보다 더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수에서 1위(미국)와 5위(러시아)의 차이도 크다. 종합점수에서 전자는 82.2점, 후자는 33.0점을 받았다. 러시아의 강점 중 하나인 군사력 면에서도 미국과의 전력 차이가 크다(91.7 대 51.6). 이는 미국, 중국 같은 주요 강대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호주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중간 강대국들이 자리하고 있는

38) Lowy Institute, *Asia Power Index 2021*, <https://power.lowyinstitute.org/downloads/lowy-institute-2021-asia-power-index-key-findings-report.pdf> (검색일: 2022.07.10.)

지역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기본 정책의 약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반복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아시아에서의 다각화는 제한된 역사적 경험, 취약한 경제적 연결, 다른 영향력 있는 강대국들의 존재, 그리고 불완전한 전략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하는 경제적, 정치적 결과로 인해 양국 간에 전쟁을 종결하는 적절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모든 것이 복잡해질 수 있다.³⁹⁾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는 러시아가 동방과 관계를 가질 때 중요한 결점을 드러낸다. 즉, 러시아의 전통적인 영향력과 지리적 존재가 강력한 역내 강국이 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아시아 중시 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정책이 처음 발표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전반적인 결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는 다양한 하위 지역에 걸쳐 미미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어쨌든, 동방으로의 선회는 러시아의 장기적인 정책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난 10년을 놓고 볼 때 이 정책의 핵심 목표들 중 일부의 미달성이나 느린 진행이 정책 성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IV. 아시아의 질서재편과 러시아의 대응 :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서방은 빠르게 대열을 정비하고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러시아에 가했다. 푸틴 대통

39) Nivedita Kapoor (2022).

령과 라보프 외무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제재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러시아 주요 은행의 자산은 세계금융시장에서 동결됐다.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도 자산을 동결시키고 공격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의 주요 투자국이자 수출 파트너인 독일은 노드스트림-2(Nord Stream II)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보류하기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동부 전선 전역에 군대 배치와 공군의 주둔을 강화했다.

그러나 유럽에서 진행 중인 분쟁은 아시아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전략적 선회를 약화시켰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지역경제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다. 이 지역의 주요 다자기구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도 러시아의 최근 행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은 러시아의 명분을 절대적으로 뒷받침하기보다는 분쟁 해결과 국가 주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함으로써 러시아와 서방을 두고 줄타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최근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과의 잠재적으로 유망한 무역관계와 국방관계를 극대화하려는 러시아의 능력을 상당히 약화시켰을 수도 있다.⁴⁰⁾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의 동방으로의 선회 정책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은 글로벌 질서 내에서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형식의 국가 간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미-중 경쟁의 심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구상은 러시아가 정책수립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핵심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다. 러시아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반대하고 오커스(AUKUS)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 중-러 공동성명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을 찾을 수 있다.⁴¹⁾ 그러나 이 지역의

40) R. Javad Heydarian, "Inflection Point: Ukraine Crisis Torpedoes Russia's Pivot to Asia," (Mar 12, 2022).

또 다른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는 공격적인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도-태평양과 쿼드를 포용했다. 일본과 호주와 같은 다른 지역 강대국들도 중국이 어떤 강대국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균형 잡힌 아시아’를 보장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그리고 주요 서방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점점 더 증가시키고 있다.

이상적으로 보면, 러시아도 다극화된 아시아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지역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불균형적인 의존을 피할 수 있다. 지금까지 러-중 간의 관계가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정책은 불균형적인 대중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및 베트남과 같은 전통적인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정책을 취했다. 러시아는 인접국가와의 영토 분쟁에서 중국 편을 들지 않았으며, 2020년 동부 라다크에서의 국경 충돌 이후 인도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균형자적인 행보를 취하는 동안,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역내 국가들도 정책을 재조정하면서 러시아의 선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자체 행동은 아시아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위태롭게 하며, 세력 양극화(bipolarity) 경향을 부추기고,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러시아-중국 간의 밀착을 우려하는 인도와 같은 파트너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⁴²⁾

러시아는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것을 피하고 중국과의 협상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 인도,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해왔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 베트남과 군사적 유대를 강화했다. 베트남은 2010년대 초부터 남중국해에서 인민해방군 해군의 발언권 강화

41) Nivedita Kapoor (2022).

42) Nivedita Kapoor (2022).

에 대응하여 군사력 및 해군력 향상을 추구해 왔다.⁴³⁾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1년 베트남과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러시아-베트남 합동군사훈련, 남중국해에서의 구조 작전을 위한 러시아 함정 배치, 베트남의 1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산 무기 구입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최근의 많은 노력으로 러시아는 2009년과 2019년 동안 베트남 무기 수입의 약 83.9%를 차지하며 베트남의 군수장비 수입의 가장 큰 공급원이 되었다.⁴⁴⁾ 러시아-베트남 안보관계 개선은 러시아가 무기 수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높이고 중국과의 교섭력을 증가시킨다.

러시아는 베트남 외에도 인도에 대한 군수장비 수출을 늘렸는데, 이는 2000년 약 6억 달러에서 2012년 약 40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러시아-인도 간 무기거래는 인도와 미국 간에 방위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2019년에 거의 12억 달러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인 인도의 최대 군수장비 수출국으로 남아 있다.⁴⁵⁾

베트남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의 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베트남 및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서 여전히 활발한 경제협력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2005년과 2014년 동안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

43) Reuters, "Vietnam Places Orders for Russian Weapons Worth over \$1 Billion: TASS," (September 8,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vietnam-russia-arms/vietnam-places-orders-for-russian-weapons-worth-over-1-billion-tass-idUSKCN1LO08K>. (검색일: 2022.07.10.)

44) David Brennan, "Russia to Join U.S.-China South China Sea Faceoff after Vietnam Pact," *Newsweek* (April 5, 2018), <https://www.newsweek.com/russia-join-us-china-south-china-sea-face-after-vietnam-pact-873643>. (검색일: 2022.07.10.)

45) Rajat Pandit, "India Now Second Largest Arms Importer in World; Saudi On Top," *The Times of India* (March 11, 2019),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india-continues-to-flounder-in-defence-production-remains-among-top-three-in-global-arms-importers/articleshow/68364304.cms>. (검색일: 2022.07.10.)

들과의 교역은 5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5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러시아-아세안 간 교역은 러시아 교역량의 3% 미만, ‘아세안 전체 수출의 1% 미만’을 차지했다. 2014년에서 2018년 동안 러시아-아세안 간의 무역은 225억 달러에서 199억 달러로 9.5% 감소했다. 그 결과 2018년 현재 러시아-아세안 간의 교역량은 아세안의 이탈리아 및 스위스와의 총 교역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⁴⁶⁾ 마찬가지로,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로서 러시아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하다. 2017년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아세안 국가로 유입된 전체 FDI의 0.3% 미만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선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⁴⁷⁾

만약 러시아가 이전보다 더 작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은 이전의 초강대국 러시아가 아시아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지역 국가들이 러시아를 경제적·정치적 입지가 약하고 중국에 너무 가까운 경제적 의존국가로 인식한다면 자국을 위협이 되지 않는 균형자로 위치시키려는 러시아의 시도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확대유라시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러시아의 확대유라시아 정책은 동쪽의 취약한 연결고리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역내 영향력을 구축하는 데 쓸 상당한 자원이 없는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제재가 채 가시화되기도 전에 아시아에서 더 약한 지위로 전략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는 또한 역내 유대관계를 다각화하고, ‘독자적인 극’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며, 새로운 지역 질서 구축에 참여한다는 러시아의 명시적인 목표에도 타격을 준다.⁴⁸⁾

46) Nivedita Kapoor (2022).

47) Nivedita Kapoor, “Russia and its Engagement with Southeast Asi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ctober 22, 2019),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russia-and-its-engagement-with-southeast-asia-56902/>(검색일: 2022.07.10.)

48) Nivedita Kapoor (2022).

따라서 외교적 해결이든 군사적 수단이든 장기간의 전쟁을 통해서든 현재 진행 중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러시아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 해결책이 조기에 모색될 수 있다면 훨씬 낫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동방과 서방 양쪽에서 자국의 군사행동이 초래하게 될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아시아 중시 정책을 통해 유럽에서 아시아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극동지역 개발과 러시아-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협력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검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서방 시장의 경제적 정체는 러시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상황 악화에 이은 유가 급락과 크림반도 병합 및 서방국가들의 대러 제재의 실시는 러시아 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키고 러시아 정부에 대해 경제정책의 전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채택한 것이 아시아 중시 정책 및 확대유라시아 정책이며, 아시아 중시 정책의 목표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아태지역과의 경제관계 다변화, 러시아의 아태지역에서의 존재감 향상이다.

러시아에서 동방으로의 전환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2012년 푸틴 대통령의 제3기 집권과 함께 시작된 아시아 중시 전략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매 효과를 발휘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크림반도의 합병이 분기점이었는데, 이로 인해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는 깊은 분열이 초래되었다. 동방으로의 선회를 통해 러시아가 달성하려고 한 세 가지 목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못한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욱 복잡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 가지 목표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은 중국과의 정치, 경제, 외교관계의 확대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에게 양날의 칼이 될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함으로써 서방의 제재 압박과 맞물려 중-러 간 힘의 비대칭성을 크게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구체적인 조치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보다 중국에 훨씬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의한 지역경제통합이나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정치, 경제, 외교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다만,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력에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이 위치한 중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BRI) 전략과 이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한중일 각국과의 경제협력은 양국 간의 틀에 머물러 통일적인 지역경제 공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는 ‘확대유라시아 파트너십’을 통한 중국과의 연계 강화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확대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상황전개는 러시아가 정책방향과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재편하고 악화된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방으로의 선회’ 및 ‘확대유라시아’라는 슬로건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혁신이 필요하다.⁴⁹⁾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사태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 대규모 무역, 투자, 군수장비 거래를 수행하는 러시아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큰 에너지 수출시장이 될 수 있는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에 포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서방 동맹국의 뒤를 따르고 있다. 러시아가 서방의 가중되는 제재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주요 국가들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있으며, 아세안-러시아 ‘포괄적 행동 계획’과 같은 주요 지역 이니셔티브를 달성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가 아세안 국가는 물론이고 서방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심 파트너인 중국조차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신성함을 강조함으로써 러시아의 최근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를 거부했다. 분명한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의 최근 행동이 아시아로의 선회 정책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글로벌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 김영진. “유라시아의 비서구 지역통합 프로젝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일대일로(BRI).” 『슬라브학보』. 제34권 1호(2019), 177-210쪽.
- 박정호 외.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윤성학.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러협력 방안.” 『수은해외경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15.
- 장덕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슬라브학보』. 제29권 1호(2014), 229-266쪽.
- “Belt and Road For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esident of Russia. Webpage. April, 2019.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0378> (검색일: 2022.06.10.)
- Bolt, Paul J. and Cross, Sharyl N. *China, Russia, and Twenty-first Century Global Geo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Bordachev, Timofei “Main Results of 2017: Energetic Russia and the Greater Eurasia Community.” December 28, 2017. <http://valdaiclub.com/a/highlights/main-results-of-2017-energetic-russia> (검색일: 2022.06.15.)
- Boulègue, Mathieu. “Russia’s Vostok Exercises Were Both Serious Planning and a Show.” *Chatham House* (September 17, 2018).
- Bratersky, Maxim. “Russia’s Pivot to Asia: Situational Interest or Strategic Necessity?” *Asian Politics & Policy*. Vol. 10, No. 4 (December 2018), pp. 584–596.
- Brennan, David. “Russia to Join U.S.-China South China Sea Faceoff after Vietnam Pact.” *Newsweek*. April 5, 2018. <https://www.newsweek.com/>

russia-join-us-china-south-china-sea-face-after-vietnam-pact-873643
(검색일: 2022.07.10.)

Diesen, G. *Russia's Geoeconomic Strategy for Greater Eur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7.

Gady, Franz-Stefan. "China's Military Accepts First S-400 Missile Air Defense Regiment From Russia." *The Diplomat*, July 2018, <https://thediplomat.com/2018/07/chinas-military-accepts-first-s-400-missile-air-defense-regiment-from-russia> (검색일: 2022.07.10.)

Hauner, Milan. *What is Asia to Us? Russia's Asian Heartland Yesterday and Today*. Boston: Unwin & Hyman, 1990.

Heydarian, R. Javad. "Inflection Point: Ukraine Crisis Torpedoes Russia's Pivot to Asia." *China & US Focus* (March 12, 2022).

Hill, Fiona & Lo, Bobo. "Putin's pivot: Why Russia is looking East." *Foreign Affairs*. July 31, 2013.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russian-federation/2013-07-31/putins-pivot> (검색일: 2022.06.20.)

Kapoor, Nivedita. "Russia's Pivot to Asia—A 10-Year Policy Review." *Valdai Discussion Club* (March 21, 2022).

_____. "Russia and its Engagement with Southeast Asia."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ctober 22, 2019.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russia-and-its-engagement-with-southeast-asia-56902/> (검색일: 2022.07.10.)

Korolev, Alexander. "Russia's Reorientation to Asia: Causes and Strategic Implications." *Pacific Affairs* 89. No. 1 (2016), pp. 53-73.

Kuhrt, N. C. "The Russian Far East in Russia's Asia Policy: Dual Integration or Double Periphery?" *Europe-Asia Studies*. Vol. 64, No. 3 (2012), pp. 471-493.

Lewis, David. "Strategic Culture and Russia's 'Pivot to the East:' Russia,

- China, and ‘Greater Eurasia.’” *Marshall Center Security Insight*. No. 34 (July 2019).
- Lowy Institute. *Asia Power Index 2021*. <https://power.lowyinstitute.org/downloads/lowy-institute-2021-asia-power-index-key-findings-report.pdf>(검색일: 2022.07.10.)
- Marlene Laruelle, “When Eurasia looks east: is Eurasianism Sinophile or Sinophobe,” in M. Bassin and G. Pozo, eds, *The Politics of Eurasianism: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Russia’s Foreign Policy*. London: Rowman and Littlefield. 2017.
- Nabil, Ryan. “Evaluating Russia’s Pivot to Asia,”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June 10, 2020).
- Pandit, Rajat. “India Now Second Largest Arms Importer in World; Saudi On Top.” *The Times of India*. March 11, 2019.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india-continues-to-flounder-in-defence-production-remains-among-top-three-in-global-arms-importers/articleshow/68364304.cms> (검색일: 2022.07.10.)
- Ponarin, Edward, Sokolov, Boris. “The Russian Elite’s View of Global Politics.” *Russia in Global Affairs*. Vol. 4. <http://eng.globalaffairs.ru/number/The-Russian-Elites-View-of-Global-Politics-17222>. (검색일: 2022.06.20.)
- President of Russia. “Presidenti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Moscow, December 12, 2013, <http://eng.kremlin.ru/transcripts/6402> (검색일: 2022.07.10.)
- Putin, Vladimir. Annu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December 12, 2012.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17118> (검색일: 2022.06.20.)
- Reuters. “Vietnam Places Orders for Russian Weapons Worth over \$1 Billion: TASS.” September 8,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

us-vietnam-russia-arms/vietnam-places-orders-for-russian-weapons-worth-over-1-billion-tass-idUSKCN1LO08K(검색일: 2022.07.10.)

Schlacks, Charles., Vinkovetsky, Ilya and Savitskii, Petr. *Exodus to the East: Forebodings and Events: An Affirmation of the Eurasians Exodus to the East*. Idyllwild, Calif.: Charles Schlacks. 1996.

Sukhankin, S. "Russia's 'Pivot to Asia' Encounters New Difficulties." *Eurasia Daily Monitor*. Vol. 17, No. 167 (2020).

Suslov, D. "Without A 'Common Space': A New Agenda for Russia-EU Relations." *Russia in Global Affairs*. 1 July 2016. <https://eng.globalaffairs.ru/valday/Without-a-Common-Space- A-New-Agenda-for-Russia-EU-Relations-18257>(검색일: 2022.06.10.).

Trenin, D. "Russia's Asia Strategy: Bolstering the Eagle's Eastern Wing." *Russie.Nei.Visions*. No. 94 (June 2016).

_____. *From Greater Europe to Greater Asia: the Implications of the Sino-Russian Entente*, Moscow: Carnegie Moscow Center. 2015.

Бордачев, Тимофей. «Новое евразизмство: Как сделать сопряжение рабочим».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14 октября 2015 г., <https://globalaffairs.ru/number/Novoe-evraziistvo-17754>(검색일: 2022.07.10.)

Ефременко, Дмитрий. «Рождение Большой Еврази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28 ноября 2016 г.

Караганов, С. "Поворот к Азии: истор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иде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12 января 2016. <https://globalaffairs.ru/pubcol/Povorot-k-Azii-istoriya-politicheskoi-idei-17919/> (검색일: 2022.06.10).

_____. «Бог победил. Что дальше?»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16 января 2017 г.

- _____ и Макаров, И. “Стратегия XXI: Поворот на Восток.” *Ведомости*. 27 января 2014. <http://www.vedomosti.ru/newspaper/articles/2014/01/28/povorot-na-vostok> (검색일: 2022.06.15.)
-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 Президентом РФ 12.02.2013). <https://legalacts.ru/doc/kontseptsija-vneshnei-politiki-rossiiskoi-federatsii-utv-prezidentom/> (검색일: 2022.06.20.)
- Ларин, Виктор. “Новая геополитика для восточной Еврази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13 сентября 2018 г. <https://globalaffairs.ru/number/Novaya-geopolitika-dlya-Vostochnoi-Evrazii-1973> (검색일: 2022.07.10.)
- Нарышкин. “успешная работа ЕАЭС с КНР поможет создать «Большую Евразию»” *РИА Новости*. 6 октября 2015 г. <https://ria.ru/20151006/1297516870.html> (검색일: 2022.06.10.)
- “Путин: Евразий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должно изменить политический ландшафт континента.” *РИА Новости*. 14 мая 2017 г. <http://1prime.ru/News/20170514/827449765.html> (검색일: 2022.06.10.)
- Путин, Владимир.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17 июня 2016 г.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2178> (검색일: 2022.06.10.)
-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ий отчёт о совещании п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о странам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2 июля 2010.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8234> (검색일: 2022.06.15.).
- _____.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3 декабря 2015.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0864> (검색일: 2022.06.15.).

<Abstract>

Main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of Russia's Pivot to Asia

Kim, Young Jin*

Ten years after Russia officially began to focus on its 'pivot to Asia' or 'turn to the East', some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remain unresolved, both inside and outside of Russia. This critique stems largely from three main factors: the failure to meet the original policy objectives, the unclear policy objectives, and the ongoing restructuring in the Asia-Pacific region.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emergence of the pivot to Asia in Russia, and how it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and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major Asian countri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is strategy. It also evaluates Russia's pivot to Asia and reviews its achievements and problems.

Clearly, the present Russia is actively promot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by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nd strengthening economic relations with Northeast A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In Central Asia, where member states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are locat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conflict of interest may arise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 addition, economic cooperation with each of Korea, China and Japan remai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two countries and could not form a unified regional economic space. In the future, it is

* HK Professor of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expec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will be promoted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link with China through the ‘Greater Eurasian Partnership’.

Key words : Geoeconomics, Pivot to Asia, Greater Eurasia, War in Ukraine, Belt and Road Initiativ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논문투고일: 2022. 07. 25]

[심사의뢰일: 2022. 08. 01]

[게재확정일: 2022. 08. 11]